

KOSDAQ | 제약과생물공학

온코닉테라퓨틱스 (476060)

자큐보 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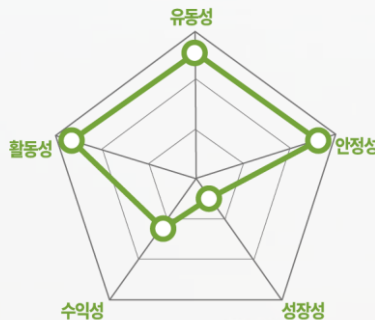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자큐보의 국내 시장 고성장세: 2024년 10월 출시 이후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며 2025년 국내 상반기 매출 164억 원을 기록, P-CAB 처방 확대에 기존 PPI 대체 가속화
- 중국 시장 진출 및 마일스톤 유입: 중국 파트너사 Livzon Pharma 2025년 8월 허가 신청 완료, 빠르면 2026 하반기 중국 시장 본격 출시 예정이며 25Q3 마일스톤 500만 달러(약 70억 원) 유입 전망
- 상장 1년 만의 수익화 실현: 2025년 매출 456억 원(+207% YoY), 영업이익 103억 원으로 턴어라운드 확실시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 기업 중 가장 빠른 수익화 달성 사례로 등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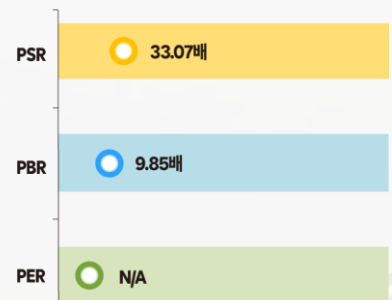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온코넥테라퓨틱스 (476060)

Analyst 김승준, PharmD edwardsj@kirs.or.kr

RA 박규연 park.gyuyeon@kirs.or.kr

KOSDAQ

제약과생물공학

P-CAB 신약 '자큐보'와 혁신 항암제 'Nesuparib' 기반의 투트랙 성장 전략

위식도역류질환(GERD) 치료제 '자큐보'와 차세대 이중표적 항암제 'Nesuparib'을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한 신약개발 기업. 2024년 4월 식약처로부터 국산신약 37호(자큐보) 허가를 획득한 후, 같은 해 12월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며 국내 최초로 신약 품목허가 후 상장한 기업. '자큐보'는 P-CAB 계열 위산분비억제제로, 빠른 약효 발현과 식전/식후 복용의 편의성을 강점으로 PPI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 2026~2027년 중국 출시를 목표로 글로벌 파트너 Livzon Pharma와 협력중. 후속 파이프라인인 Nesuparib은 체장암과 위암에서 미국 FDA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 받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확보중.

국내 P-CAB 시장 선점에서 글로벌 시장 확장까지, '자큐보'의 도전

'자큐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 2024년 10월 국내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처방액을 확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 중국 파트너사인 Livzon Pharma를 통해 2025년 8월 중국 내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빠르면 2026년 하반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전망이 강점으로 꼽히며, 25Q3에는 Livzon으로부터 500만 달러(약 70억 원)의 마일스톤 수익을 수령할 예정. 인도, 중남미, 북유럽 등 총 26개국과도 기술이전 및 유통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적으로 로열티 기반의 수익원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는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

국내 바이오업계 최단기간 수익화 성공

2025년 동사는 상장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실한 수익화를 달성할 전망. '자큐보'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과 해외 마일스톤 유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하며, 연간 매출액은 456억 원(+207% YoY), 영업이익 103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77억 원으로 추정. 이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수익성을 확보한 매우 이례적인 성과. 특히 3Q에는 Livzon으로부터 마일스톤 수익 유입 예정으로,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	1	211	148	456
YoY(%)	N/A	58.3	22,064.2	-29.5	207.3
영업이익(억원)	-83	-148	22	-48	103
OP 마진(%)	-13,903.2	-15,618.5	10.6	-32.3	22.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51	-144	17	-81	77
EPS(원)	-2,136	-1,924	183	-871	704
YoY(%)	N/A	적지	흑전	적전	흑전
PER(배)	N/A	N/A	0.0	N/A	75.0
PSR(배)	0.0	0.0	0.0	10.2	12.7
EV/EBITDA(배)	N/A	N/A	9.3	N/A	49.7
PBR(배)	N/A	N/A	N/A	3.2	9.2
ROE(%)	189.9	96.5	-8.1	-44.6	12.9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22)	43,800원
52주 최고가	45,100원
52주 최저가	13,050원
KOSDAQ (9/26)	874.36p
자본금	29억원
시가총액	4,846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7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53억원
외국인지분율	74.9%
주요주주	제일약품 외 3인 55.7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3.8	189.2	
상대주가	105.2	148.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 연혁 및 개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와
이중표적 혁신 항암제
‘Nesuparib’을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한 신약개발
기업. 자큐보는 국내 판매를
기반으로 성장 중이고 중국 등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Nesuparib은 글로벌 L/O을
목표로 임상을 활발히 진행 중

온코네티라퓨틱스는 2020년 5월 설립된 신약개발 기업으로, 대표이사 김 존은 크리스탈지노믹스에서 신약개발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차바이오그룹 서울 CRO 대표이사과 먼디파마 Pacific Asia 지역 사업개발 총괄을 맡은 경험이 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Zastaprazan)이 있으며,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으로는 차세대 이중표적항암제 Nesuparib(네수파립)이 있다. 동사는 2024년 4월 ‘자큐보’ 식약처 국산신약 37호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2024년 12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였다. 이는 상장 전 신약 품목허가를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2025년 9월말 기준 임직원 수는 37명이며, 이 중 연구개발 인력이 86%를 차지한다. 이는 신약개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 중심 조직 구조를 보여준다.

‘자큐보’정은 식전/식후 무관하게 복용가능한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계열의 위산분비억제제로, 2024년 10월 국내에 출시되었다. 더 나아가 2025년 1월 위궤양 적응증 추가를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임상 3상이 종료되었고 품목허가를 승인받았으며, 현재 NSAIDs 유발 소화성 궤양(위 십이지장 궤양) 예방 및 비미란성(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점막의 궤양이나 손상이 보이지 않지만 위산 역류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 위식도역류질환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다.

Nesuparib은 PARP-1/2와 Tankyrase를 동시에 저해하는 합성치사(Synthetic lethality, 유전자의 이중 가닥이 각각 따로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동시에 기능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세포가 생존하지 못하는 현상) 혁신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2021년 3월 미국 FDA와 2021년 6월 국내 식약처로부터 체장암 희귀의약품 지정(ODD, Orphan Drug Designation)을 획득하였다.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 국가지원과제,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국가지원과제, 한미 국가정밀의료데이터 구축 암연구 공동사업 참여과제 등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체장암(임상 2상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제출), 자궁내막암(임상 2상 연구자 주도 진행), 위암(1b/2상 IND 제출), 난소암(임상 2상 IND 예정)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위암/위식도 접합부암 희귀의약품 지정(ODD, Orphan Drug Designation) 승인을 미국 FDA로부터 받았다.

동사의 ‘자큐보’정 판매매출은 현재는 내수에 한정되어 발생하고 있고, 중국 파트너사 Livzon Pharmaceuticals가 현재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중국 내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큐보’정 국내 판매의 경우, 제일약품 및 동아에스티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Nesuparib의 경우, 임상 2상 종료 후 글로벌 파마들을 대상으로 License Out(L/O)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 컨퍼런스 참석 및 파트너사 후보 접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연혁

2020~2021	2022~2023	2024~
2020.05 온코네티라퓨틱스 설립 2020.09 자류보 및 네수파림 기술도입 2021.03 네수파림 해당암 화귀의약품 지정(미국 FDA) 2021.05 네수파림 항암신약치료개발사업 국가과제 선정(보건복지부) 2021.06 네수파림 해당암 화귀의약품 지정(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 네수파림 ASCO Poster 선정 및 발표(임상1상 결과) 2021.06 한국 네수파림 해당암 화귀의약품 지정(ODD) 2021.11 자류보 한국 임상 2상 종료 2021.12 네수파림 한국 임상 1상 종료 2021.12 자류보 임상 3상 IND 승인 - 미란성 역류성식도염	2022.01 네수파림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국가과제 선정 2022.02 네수파림 임상 1b상 IND 승인(해장암) 2022.02 자류보 정제개발 특허출원 2022.05 자류보 항생제 병용 / NSAIDs 병용 DDI 임상시험 완료 2022.06 네수파림 임상 2상 IND 승인(난소암) 2022.06 자류보 임상 3상 IND 승인 - 위궤양 2022.11 자류보 캡슐/정제 생물학적 동등성 임상 1상 종료 2023.03 자류보 중화권 기술수출(인보존 약 1,600억원 규모) 2023.04 네수파림 AACR 포스터 발표(해장암 및 난소암 비임상 결과 발표) 2023.05 자류보 NDA 제출 2023.05 자류보 NDA(품목허가) 신청 - 미란성 역류성식도염 2023.05 자류보 식이 영양평가 임상시험 종료 2023.06 네수파림 PAGE 포스터 발표(PK/PD 결과 발표) 2023.11 자류보 주사제개발 특허 출원 2023.12 자류보 중국 임상 시작	2024.03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기술수출상 수상 2024.04 네수파림 AACR 포스터 발표(자궁내막암 비임상 결과 발표) 2024.04 자류보 임상 3상 IND 승인 - NSAIDs 유발 소화성 궤양 예방 2024.04 자류보 식약처 국산신약 37호 허가 완료 2024.05 자류보 인도 라이선스 아웃 2024.06 네수파림 한미 국가정밀의료데이터 구축 연구사업 과제 참여 2024.06 네수파림 임상 1b/2상 IND 승인(자궁내막암 키트루다 병용 IT) 2024.07 자류보 임상 3상 종료보고서 완료 - 위궤양 2024.09 자류보 멕시코 및 남미 19개국 라이선스 아웃 2024.10 자류보정 국내 출시(제일약품&동아ST판매) 2024.11 한국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신약대상 수상 2024.12 코스닥 상장 2025.02 대한민국 신약개발대상 수상 2025.03 네수파림 위암/위식도점막부암 ODD승인 미국 FDA 2025.08 자류보 중국 NMPA 허가 신청

자료: 온코네티라퓨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1. 전문의약품 ETC 사업 (자류보, 2024년 매출 비중: 100%)

‘자류보’정은 P-CAB 계열의 차세대 GERD 치료제로, 빠른 작용 기전과 강력한 위산 억제 효과를 통해 기존 PPI의 한계를 극복하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확장을 목표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 파트너사들과 유통 또는 L/O 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동사의 핵심 제품

온코네티라퓨틱스의 ‘자류보’정(성분명: Zastaprazan)은 위식도역류질환 GERD(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치료를 위한 차세대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계열 신약으로, 2024년 4월 국산 신약 37호로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국내에 출시되었다. 기존 GERD 치료제인 PPI(Proton Pump Inhibitor)가 위산 분비 효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만 작용하고 약효 발현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P-CAB은 복용 즉시 Proton Pump(H⁺/K⁺-ATPase)의 칼륨 결합 부위(K⁺ site)에 직접 결합하여 산 분비의 마지막 단계를 차단한다.

이 결합은 칼륨이 펌프에 들어가 수소 이온(H⁺)과 교환되어 위강으로 배출되는 과정 자체를 억제해, 위산 생성 사이클을 실질적으로 ‘Switch Off’ 상태로 만든다. 또한 P-CAB은 활성화되지 않은 휴지 상태(resting state)의 펌프까지 억제할 수 있어, 복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신속한 산 억제 효과를 발현한다. 약물이 분비소관(canalculi)에 고농도로 축적되면서 활성/비활성 펌프 모두에 높은 친화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력한 억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식사 전후 관계없이 해당 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야간 위산 분비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 야간 속쓰림과 같은 증상 완화에 유리하다.

P-CAB기전 대한민국신약37호 '자큐보정' 출시 (GERD 치료제)



역류성 식도염

- 가슴에 타는듯한 통증/목으로 신물 역류
- 국내 환자 약 500만명
- 복미 인구 약 30% 유병



기존 치료제 (PPI)

위벽의 양성자 펌프를 억제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 단, 양성자 펌프를 억제하기 위해 공복(산생) 상태에서 복용 필요



자큐보정

위벽의 아온이 펌프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위산 분비 억제

식전, 식후 무관하게 복용 가능

	PPI	P-CAB
효능 유지	약한 효능, 야간 위산 돌파 발생	강한 효능, 야간 위산 돌파 억제
최대 효과	투약 후 5일 뒤 도달	첫 복용 이후부터 도달
투약 시기	식전 투여	식전 / 식후 모두 가능

PPI : Proton Pump Inhibitor / P-CAB :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자료: 온코네티라퓨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러한 기전적 차별성은 기존 PPI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특히 기존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던 **중증 GERD 환자군**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유럽소화기학회 UEGW(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Week)에서 발표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에서 자큐보정은 **4주 투여 시 95.14%의 치료율**을 보여, 대조군 대비 7.46%포인트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입증했다. 또한 PPI 계열 약물 대비 **비열등한 효능과 내약성**을 확인하며,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었다.

자큐보 유럽소화기학회(UEGW) 임상 3상 결과

Efficacy and Safety of Zastaprazan in EE

A multi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Phase 3 study

Study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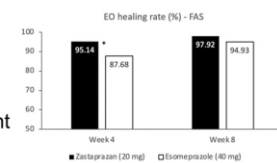
: Male or female patients aged ≥ 19 years with endoscopically confirmed Erosive Esophagitis (EE) (N=300)

Intervention

: Zastaprazan 20 mg (N=149)
Esomeprazole 40 mg (N=151)

Outcome

: The cumulative healing rate at week 4 was 95.14% for zastaprazan and 87.68% for esomeprazole (FAS)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7.46% ($p < 0.05$).



자료: AJG(Oh JH, et al. Am J Gastroenterol. 2025 Feb 1;120(2):353-361),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에서는 자사의 자체 판매 조직 없이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의 탄탄한 영업망을 통해 전국 병의원에 공급되고 있다. 두 회사는 소화기 치료제 분야에서 이미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자큐보정은 출시 초기부터 안정적인 처방 기반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업 구조는 동사가 신약 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해외 시장에서도 '자큐보정'의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동사는 2025년 5월 기준 전 세계 26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

했으며, License-out(L/O) 및 완제품 수출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약 4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GERD 치료제 시장**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장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사는 2023년 3월 중국 Livzon Pharma(리브존 제약)와 중화권(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규모는 총 1.28억 달러(약 1,65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선수금 Upfront 1,5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선지급 받았다. 이후 Livzon은 '자규보'정의 중국 내 개발, 허가, 생산, 상업화를 전담하며, 각 단계별 개발 마일스톤에 따라 추가 기술료를 동시에 지급하게 된다. 판매 개시 이후에는 매출에 따른 로열티가 발생하는 구조로, 장기적인 수익원이 될 전망이다.

2025년 8월, Livzon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에 '자규보'정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빠르면 2026년 하반기 중국 시장 출시가 예상된다. 중국 출시 이후 당사는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국 외에도 인도, 멕시코, 브라질, 북유럽 등 다양한 Emerging Market에 대한 L/O 계약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해외 매출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자규보'정의 핵심 물질특허가 국내에서 2040년 9월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장기간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국내 및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경쟁우위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자규보'정은 차별화된 작용 기전과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통해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는 국내 처방 시장 확대와 해외 상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위식도역류 질환(GERD) 치료제 시장에서 동사의 입지를 한층 강화해줄 주요 사업으로 평가된다.

2. 신약 개발 사업 (Nesuparib, 이중 표적 항암제)

Nesuparib은 PARP와 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표적 합성치사 기전을 가진 차세대 항암신약으로, 췌장암과 위암에서 FDA 화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임상 2상 성과와 L/O를 통해 동사의 장기 성장성을 높일 핵심 성장동력

'자규보'정의 국내외 시장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Cash Flow를 확보한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이를 기반으로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며,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과 L/O를 병행하는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바로 동사의 Nesuparib(네수파립)으로, 회사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Nesuparib은 동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이중표적 항암신약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두 가지 타깃인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와 Tankyrase(TNKS)를 동시에 억제하는 **합성치사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PARP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핵심 효소로, 암세포가 세포 손상을 극복하고 생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Tankyrase는 **Wnt(윈트)/β-Catenin pathway**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과 면역 회피를 조절하는데 관여한다. Nesuparib은 PARP를 억제해 암세포가 DNA 복구에 실패하게 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Tankyrase 억제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 신호와 면역회피 메커니즘을 동시에 차단한다. 이러한 **이중 억제 전략**은 기존 단일 PARP 억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내성 문제를 줄이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혁신 항암제로 개발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PARP 억제제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췌장암이나 위암과 같은 난치성 암종에서도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며, 글로벌 시장에서 First-in-Class 신약으로의 도전을 이어 가고 있다.

현재 Nesuparib은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 1/2상**이 진행 중인데, **췌장암**에서는 진행성 및 전이성 환자를 대상

으로 1차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임상 1b상**을 완료하고 2025년 8월 식약처에 **임상 2상 IND**를 제출했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한국 16.5%, 미국 9%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암종으로, 높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 Nesuparib은 2021년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로부터 췌장암 적응증에 대한 희귀의약품지정 ODD(Orphan Drug Designation)을 획득하며 국제적인 개발 잠재력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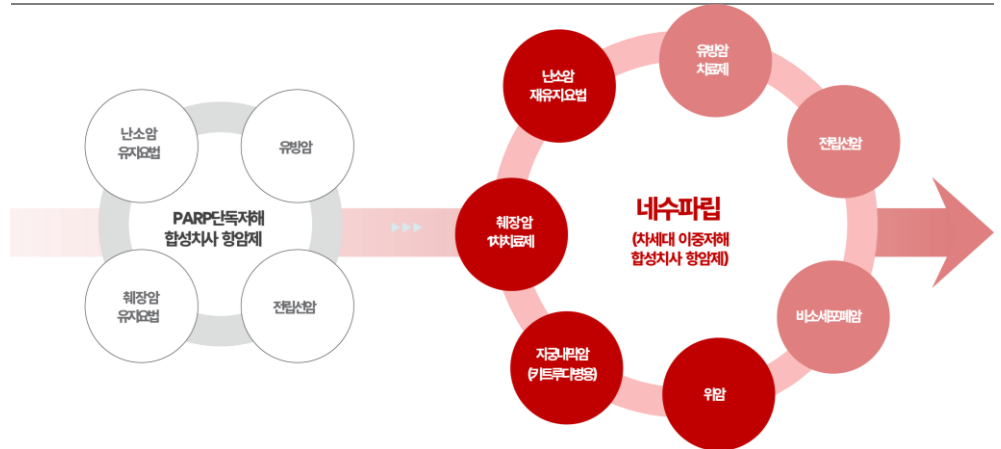
자궁내막암에서는 MSD의 면역항암제 ‘Keytruda’와 병용 임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Merck로부터 약 100억 원 규모의 ‘Keytruda’ 무상 공급을 확보하여 **국내 연구자 주도 임상 2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암의 경우, 국내에서 **임상 1b/2상 IND를 신청**했으며, 2025년 3월 미국 FDA로부터 두 번째 ODD를 획득했다. 기존 PARP 억제제들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위암에서 Nesuparib은 HRD(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유무와 관계없이 강력한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는 전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이는 AACR2025 학회에서 발표되었다. 위암은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인 영역임에 따라, ODD를 통한 세금 혜택 및 임상 보조를 기반으로 개발 가속화를 계획하고 있다.

난소암 적응증은 셀트리온과 협력하여 Bevacizumab biosimilar ‘베그젤마’와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이다. 소규모 탐색적 임상 1상 결과, 말기 난소암 환자 5명 중 4명에서 **종양 크기 30% 이상 축소(ORR, Overall Response Rate: 80%)**, 나머지 1명에서도 질병 진행 억제(DCR, Disease Control Rate 100%)가 확인되며 유의미한 치료 반응을 입증했다. 이 결과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난치성 말기 난소암에서도 Nesuparib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2025년 하반기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Nesuparib은 췌장암과 위암 두 적응증 모두에서 FDA 희귀의약품지정(ODD)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세금 감면, 허가 신청비 면제, 신속심사, 허가 후 7년간 시장 독점권** 등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상업화 이후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며, 누적승인율은 약 17.6%에 불과하다. 특히 2022년 기준 FDA 승인 신약의 49%가 ODD 신약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Nesuparib이 연속적으로 ODD를 획득한 것은 글로벌 혁신성과 시장성을 어느정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차세대 이중저해 기전에 기반한 차별적인 적응증 확대 개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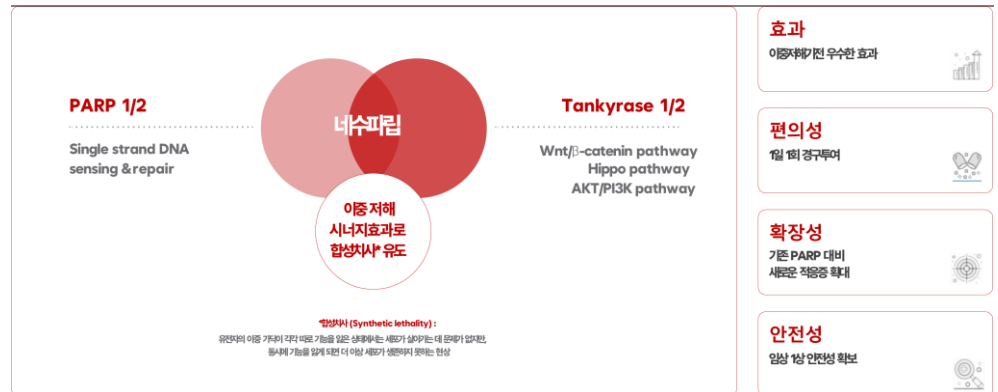
자료: 온코네티라퓨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사는 Nesuparib 개발에 있어 임상 직접 개발과 L/O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데, 일부 적응증은 자체 임상을 통해 국내외 허가를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와의 L/O를 통해 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상업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혁신 항암신약의 특성상 임상 2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대형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에, Nesuparib 역시 임상 2상 진입 시점부터 L/O 가능 모멘텀에 대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Nesuparib 개발은 정부 국책과제 지원을 통해 재정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초기에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항암신약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총 3개의 국책과제를 수행해 약 10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2024년 8월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암센터가 참여하는 정밀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특정 암 환자군의 치료 반응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임상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임상 리스크를 줄이고 신약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Nesuparib은 동사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혁신적인 이중표적 기전과 FDA 희귀의약품 지정이라는 개발 가속화 요인,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기반으로 한 L/O 가능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향후 임상 2상 진입 및 L/O 성과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가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신약으로, ‘자규보’정으로 확보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R&D 투자를 확대하는 동사의 장기 성장성을 높일 주요 사업이다.

PARP와 Tankyrase 동시 저해하는 차세대 합성치사 DDR 기전 항암신약후보, Nesuparib



자료: 온코네티라퓨틱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제학회에서 Nesuparib의 우수한 항암 효과 발표

ASCO(미국암종양학회)
포스터 발표 2021년

- 말기 고령환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유효성 평가 결과 발표

AACR(미국암연구학회)
포스터 발표 2건 2023년

- 네슈파립이 기존 PARP 억제제 대조군 중 중앙 생존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
- Wnt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장암 세포에서 네슈파립이 기존 PARP 억제제보다 높은 세포사멸 효과를 확인

AACR(미국암연구학회)
포스터 발표 1건 2024년

- 세포사멸의 비정상 비교 시험을 통해 PTEN 유전자 결손이 없는 자궁내막 세포주에 유사한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
- PTEN 유전자 결손이 있는 자궁내막암 세포주에서는 더 큰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

AACR(미국암연구학회)
포스터 발표 1건 2025년

- 세포사멸의 비정상 비교 시험을 통해 비교약물 대비 활동한 위양성률의 사멸 효과를 확인
- Hippo의 Wnt pathway 조절을 통한 위양성률 유효성을 확인

자료: 온코네티라퓨틱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온코네티라퓨틱스 신약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

	분류	파이프라인	적응증	Discovery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NDA	허가	
비항암	위산 유발 소화기질환 치료제	자큐보® (P-CAB) :신약 허가 및 국내 출시 완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국산신약 37호 품목허가 완료 (24.04.24)							
			위궤양	추가 적응증 품목허가 완료 (25.06.17)							
			NSAIDs 유발 소화성궤양 예방	임상 3상 진행중					구강봉쇄정 NDA 4월 제출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임상 3상 진행중							
항암	합성치사 DNA 손상 복구 저해 항암제	네슈파립 (PARP/Tankyrase) :전임상 대상 임상1상 종료 후 적응증별 2상 중	췌장암	임상 1b/2상 IND 제출					한미 양국 정밀의료구축 국가사업 참여		
			자궁내막암 (키트루다 병용)	임상 2상(연구자주도) 진행 중							
			위암	임상 1b/2상 IND제출							
			난소암	임상 2상 IND 준비중							
		OCNR-100 OCNR-200 OCNR-101 OCNR-300	고형암	Lead Optimization							
				Lead Generation							
				Lead Generation							
				Hit generation							

*IND 준비중인 임상종별 계획 및 실험계획은 당사 내부 계획임으로 회사 전략 및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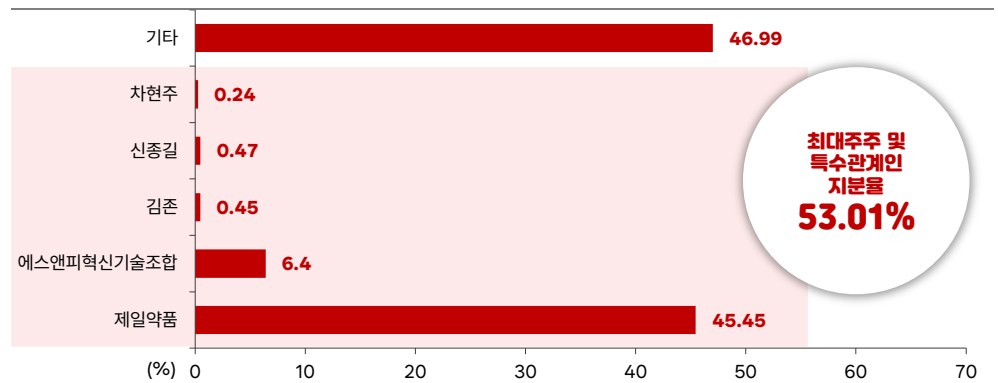
자료: 온코네티라퓨틱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2025년 6월 말 기준, 온코네티라퓨틱스의 최대주주는 제일약품으로, 보통주 5,000,000주를 보유하며 지분율 45.45%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온코네티라퓨틱스 상장 시 최대주주로서 2년의 보호예수를 설정하여 2026년 12월 18일까지 이는 유지된다. 그 외 특수관계인으로는 제일약품이 출자한 특수관계인인 에스앤피 혁신 기술 1호 조합(지분율 6.40%), 대표이사 김존(지분율 0.45%), 등기임원인 신종길(지분율 0.47%)과 비등기임원인 차현주(지분율 0.24%)가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합산할 경우 총 지분율은 53.01%에 달한다.

5% 이상 지분 보유자는 최대주주인 제일약품과 제일약품의 특수관계인인 에스앤피 혁신 기술 1호 조합이다. 우리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호예수 종료 기간까지 1년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보호예수 해제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태이다.

주주 구성 (2025.06.30)



자료: 온코네티라퓨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역류성 식도염 (GERD) 치료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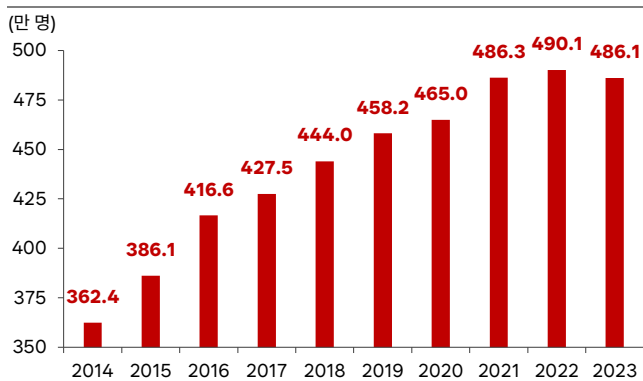
GERD 치료제 시장은 PPI에서 P-CAB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P-CAB 신약과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며 향후 시장을 주도할 전망

위식도역류질환(GERD)은 위 내용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쓰림, 흉부 작열감 등 불편감을 유발하고, 장기간 방치 시 식도 점막 손상, 미란성 식도염, 바렛식도 및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부식도괄약근 기능 약화, 비만,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식생활 변화와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ERD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소화성 질환을 넘어 만성 질환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증상 개선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약물 치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GERD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약 2,600억 원이던 국내 시장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약 9,100억 원 규모에 도달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수는 2014년 362만명에서 2023년 486만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3% 증가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분석 전문 기관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글로벌 GERD Top 10 치료제 시장은 약 2024년 28.9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38.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매년 CAGR 4.8%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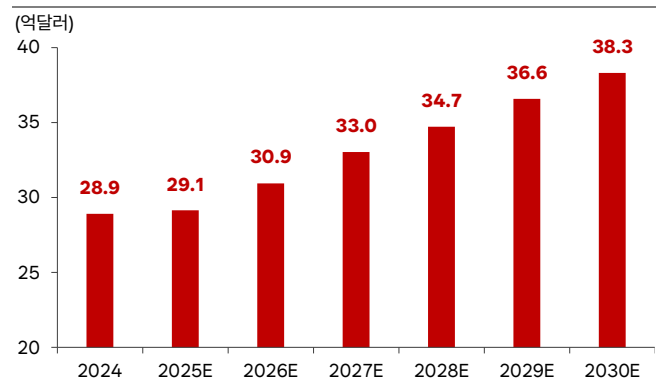
중국을 세계 최대 단일 GERD 치료제 시장으로 IQVIA에 따르면 약 4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존재하는 가운데, 도시화와 식습관 변화로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도와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등)는 경제 성장과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신흥 시장이다. 북유럽은 아직 P-CAB 계열 약물이 본격 도입되지 않은 초기 시장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성장성을 타겟으로 기술수출 및 완제품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남미를 전략적 요충지로 설정해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GERD 환자수 추이 (질병코드 K-2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Global GERD Top 10 치료제 시장 규모 추이



자료: Evaluate Pharm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GERD 치료제의 핵심은 위산 분비 억제인데, 현재 사용되는 주요 계열은 PPI(Proton Pump Inhibitor)와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로 구분된다. PPI는 위 점막의 양성자 펌프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여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로, 198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한 이래 GERD의 1차 치료제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왔다. 대표 약물로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등이 있으며, 강력한 위산 억제 효과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표준 치료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PPI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식전 복용이 필요하고, **3~5일의 약효 발현 지연, 야간 위산 억제 한계, 약물 상호작용, 장기 복용 시 골다공증 및 신질환 위험** 보고 등 문제들이 점차 부각되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P-CAB 계열의 약물이 시장에 등장하며 점차 PPI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실제로 한때 PPI 계열의 대표 품목으로 매출 1위를 기록했던 한미약품의 '에소메졸' 역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체 국면에 들어서며, GERD 치료제 시장의 트렌드가 PPI에서 P-CAB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GERD 치료 시장은 이제 PPI 중심의 시대에서 P-CAB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으며, 환자의 치료 만족도와 신속한 증상 개선을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점차 주요 처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9년 국내 P-CAB의 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급성장하며 2023년 14.7%, 2025년 상반기에는 22%를 넘어섰다. 반면 PPI의 비중은 같은 기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진의 처방 패턴 변화와 환자의 약효 체감도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신 국내 GERD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PPI 불응성 환자에 대한 P-CAB 전환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P-CAB을 1차 치료제로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PPI 중심의 시장이 P-CAB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내 P-CAB이 주류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P-CAB은 위산 펌프의 칼륨 결합 부위를 경쟁적으로 차단해 복용 즉시 약효가 나타나며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고, 하루 한 번 복용으로도 24시간 지속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야간 위산 분비 억제력이 우수하고 약물 상호작용이 적어 환자 복약 순응도가 높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P-CAB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 PPI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GERD 환자군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국내에서는 2019년 HK이노엔의 '케이캡'(K-CAB) 출시를 시작으로, 2022년 대웅제약의 '펙스클루', 2024년 온코네티라퓨틱스의 '자큐보정'이 차례로 시장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P-CAB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각자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는데, HK이노엔은 '케이캡'을 통해 P-CAB 시장을 개척하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및 미국 등 해외 진출을 확대 중이다. 대웅제약은 '펙스클루'를 통해 P-CAB 시장에 진입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 동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자큐보정'을 통해 후발 주자로 진입했으며,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확대하고 중국, 인도, 남미, 북유럽 등 26개국에 파트너십을 진행하며 글로벌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유한양행, 일양약품, 한미약품 등은 PPI 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통해 시장에서 일정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GERD 치료제 시장은 P-CAB 중심으로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5년간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P-CAB 계열은 초기 시장 진입 단계로, 적응증 확대와 장기 안전성 데이터 축적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화권, 인도, 중남미 등 Emerging Market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선 제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산 P-CAB 신약은 국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수출 성과와 글로벌 매출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보자면, GERD 치료제 산업은 PPI에서 P-CAB으로의 구조적 전환기에 있으며, 강력한 약효와 편의성을 앞세운 P-CAB 계열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환자 치료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낼 핵심 변화 기로에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합성치사 기반 항암제 산업

글로벌 합성치사 항암제 시장은
PARP 억제제 중심에서
이중 표적 및 병용 요법으로
진화하며,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혁신
항암제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

글로벌 합성치사 기반 DNA 손상 복구 저해 항암제 시장은 항암제 산업 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합성치사 항암제는 여러 암종에서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정밀의료의 확산에 따라 환자군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병용 요법의 등장으로 임상 연구와 상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합성치사는 두 유전자 또는 경로가 동시에 억제될 때만 암세포가 사멸하는 원리를 활용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특정 종양 억제 유전자(BRCA1/2 등)가 손실된 암세포에서는 상보적인 DNA 복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를 약물로 억제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다. 이 개념을 구현한 대표적인 치료제가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다. PARP1/2 효소를 차단해 DNA 복구를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최초의 PARP 억제제는 난소암 환자에서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여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암세포가 상동재조합 복구 기능을 회복하거나 대체 경로를 활성화하며 약물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업계는 단일 표적에서 벗어나 복수 표적을 겨냥하거나 병용 요법을 통해 내성을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PARP와 HDAC(Histone DeAcetylase), PI3K(Phosphatidylinositol 3-kinase), Tankyrase(TNK) 등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표적 전략**이 연구되고 있으며, PARP 억제제와 면역항암제, ATR(Ataxia Telangiectasia and Rad3-related protein) 억제제, WEE1 억제제 등과의 병용 임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중 표적 전략의 사례들중 하나가 온코네티라퓨틱스의 'Nesuparib'이다. Nesuparib은 PARP와 TNK를 동시에 억제해 DNA 복구 경로와 암세포 성장 신호를 동시에 차단한다. 기존 PARP 억제제가 HRD(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양성 암세포에서만 효과를 보이는 데 비해, Nesuparib은 HRD 여부와 관계없이 작용 가능해 더 넓은 환자군에 적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임상 결과에서는 기존 PARP 단독 억제제 대비 **더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확인했으며, Wnt 및 Hippo pathway 억제를 통해 내성 극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현재는 임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데이터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다.

현재 승인된 PARP 억제제는 Olaparib(Lynparza, AstraZeneca[영국]/MSD[미국]), Niraparib(Zejula, GSK[영국]), Rucaparib(Rubraca, Clovis Oncology[미국]), Talazoparib(Talzenna, Pfizer[미국]) 등 네 가지다. 이들은 난소암에

서 출발해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다. Olaparib은 BRCA(BReast CAncer gene) 변이 난소암 치료에서 시작해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되었으며, Niraparib은 BRCA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난소암 유지요법으로 사용된다. Rucaparib은 전립선암으로 적응증을 넓혔으나 일부 난소암 후기 치료 적응증은 FDA가 승인을 철회했다. Talazoparib은 유방암, 전립선암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 BeiGene(중국)이 개발한 Pamiparib은 중국에서 승인되며 로컬 시장에서 성장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형 L/O 및 M&A 거래**는 이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데, 2013년 BeiGene이 Pamiparib 글로벌 L/O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된 흐름은 2016년 Tesaro(미국)와 Janssen(벨기에), 2017년 AstraZeneca(영국)와 MSD의 계약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7년 7월 체결된 AstraZeneca와 MSD 간 Olaparib 공동 개발 및 상업화 계약은 최소 **85억 달러 규모**로, MSD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공동 마케팅 권리를 확보하고 수익을 양사가 균등 분배하는 초대형 'Big Deal'이었다.

2019년 1월에는 **GSK가 Tesaro를 51억 달러에 인수**하며 Niraparib 파이프라인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인 2023년 10월에는 **중국 항서제약(Hansoh Pharma)이 머크(Merck)와 차세대 PARP1 억제제 및 ADC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선수금 1억6,000만 유로와 마일스톤 최대 14억 유로**에 달하는 계약으로, PARP 억제제의 기술이 단일 약물에서 복합 기전 치료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글로벌 빅딜은 PARP 억제제가 단순한 단일 치료제에서 **병용 요법 및 이중 표적 치료제**로 발전하는 방향을 반영한다. AstraZeneca, MSD, GSK, Pfizer 등 Global Big Pharma들은 PARP 억제제를 중심으로 고형암 치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TNK, ATR, WEE1 등 새로운 합성치사 타깃으로 기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향후 5년간은 기존 PARP 억제제의 시장 확대와 함께 차세대 합성치사 신약이 등장하며, 기술 차별화와 명확한 환자 타깃 전략을 갖춘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중 표적 기전의 임상적 우수성을 입증해 기존 PARP 억제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합성치사 항암제의 글로벌 Big Deal 현황

일시	개발기업	제품	파트너	L/O 및 M&A 주요 내용	계약금액
2023.1	항서제약 (중국)	PARP1	Merck	차세대 PARP1(폴리 ADP-리보스 1) 효소 억제제와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	계약금 1억 6000만 유로 마일스톤 14억 유로
2019.01	Tesaro	ZeJula	GSK	테사로 인수	51억 달러
2017.07	Tesaro	ZeJula	Takeda	일부지역 독점개발 및 판매 라이선스 계약 일본, 한국, 대만, 러시아, 호주	계약금 1억 달러 마일스톤 2억 4천만 달러
2017.07	AstraZeneca	Lynparza	Merck & Co.	美 머크와 공동개발 및 상업화 제휴 상업화 이익은 균등분배 합의	계약금 16억 달러, 라이선스 옵션 7억 5천만 달러 마일스톤 61억천만 달러
2016.04	Tesaro	Niraparib	Janssen	일본 제외한 전세계 전립선암 권리 확보	계약금 3,500백만 달러 마일스톤 4억 1,500백만 달러, 지분 5천만 달러
2013.05	BeiGene	Pamiparib	Merck Serono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 개발과 판매권을 머크 Serono 사에 판매	마일스톤 2억 3천만 달러

자료: 온코네티라퓨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자류보정, 국내외 동반 성장으로 온코네티라퓨틱스의 핵심 성장엔진 부상

‘자류보’정은 국내 P-CAB
시장에서 빠른 점유율 확대와
안정적 Cash Flow를 기반으로,
중국 Livzon Pharma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성장
가시성을 확보하며 동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중

온코네티라퓨틱스는 국내 3번째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인 ‘자류보’정(성분명: Zastaprazan)을 보유하고 있고, 2024년 10월 국내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처방액을 확대하며 기존 PPI 제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특히, ‘자류보’정은 HK이노엔 ‘케이캡’(1,300원), 대웅제약 ‘펙수클루’(939원) 대비 **저렴한 약가(911원)** 전략으로 출시되었으며, 우수한 약효와 복용 편의성을 앞세워 국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매출 186억원, 영업이익 27억원을 달성하며 **첫 반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기술특례로 상장된 바이오기업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국내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자류보’정은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도 추진하고 있는데, 동사는 이미 **중화권, 중남미, 북유럽 등 다양한 국가와 기술수출 또는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210억원, 2024년 90억원의 기술료 매출을 기록했고, 이중 특히 2023년 4월에 중국 1위 소화기 전문 제약사 **Livzon Pharmaceuticals**에 중화권 판권을 L/O하며 계약금 1,500만 달러(약 200억원)를 수취한 기록이 가시적이다. 최근 Livzon은 임상 3상을 불과 7개월 만에 완료하고 2025년 8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신약 허가신청을 마쳤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마일스톤 500만 달러를 이번 25Q3에 수취할 예정**이다.

Livzon은 중국 소화기 치료제 분야 매출 6,000억원 규모의 업계 1위 기업으로, 연매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자류보’의 중국 시장 안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IQVIA에 따르면 전세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이미 30조원 이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 중 중국 시장만 4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P-CAB 시장은 현재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전년 대비 81%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기존 PPI에서 P-CAB으로의 시장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사는 Livzon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 시장 내 매출 조기 실현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 실제 판매와 이로 인한 로열티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는 현지 대형 제약사 **Sun Pharm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중남미 등 다수의 국가로 ‘자류보’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매출 성장의 가시성이 더욱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해외 수익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Cash Flow와 해외 시장의 성장세가 맞물리며, ‘자류보’정은 동사의 **중장기 핵심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위궤양 등 추가 적응증 승인 추진과 구강붕해정 ODT(Orally Disintegrating Tablet) 등 신제형 개발이 완료되면 제품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기대되며, ‘자류보’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자류보정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약을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신약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장출시 및 처방 시작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수익 창출	2023년 Livzon Pharmaceutical Group과 중화권 지역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계약금 200억 규모)	
	자류보정 국내 처방금액				2024년 인도 상정사에 인도지역 관리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2024년 멕시코, 남미 19개국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33억	67억	90억(F)		2025년 북유럽 5개국 유통 판매 계약 체결	
	출시후 첫분기	출시후 2분기	출시후 3분기			

자료: 온코네티라퓨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무상증자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성장 자신감 입증

동사는 300% 무상증자를 통해
경영진의 장기 성장 자신감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입증하며,
향후 유동성 개선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가 모멘텀 강화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상장 후 처음으로 무상증자(1주당 3주 배정, 300% 증자)를 단행하며, 기업의 성장 자신감과 주가
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2025년 9월 1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 3,300만주가량을 신규 발행하며,
기존 주식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였다. 이번 무상증자의 재원은 자본잉여금 약 167억원으로, 회사는
그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라고 언급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 13일, 상장 예정일은 11월 3일로 확정되었으며,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 거래 활성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무상증자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발표 당일 동사의 주가는 전일 대비 약 **20.5% 급등**하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류보’의 시장 성공에 따른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주주 친화적 정책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반영했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발주자인 동사가 경쟁사 대비 기업 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높고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 무상증자는 단순히 주식 수를 늘리는 주식분할 효과를 넘어, 경영진의 **장기 성장 자신감**을 드러낸 결정으로 해석
된다. ‘자류보’의 국내외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증자는 경영진이 향후 **실적 개선과 현금흐름 확대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유통 주식 수 확대를 통한 유동성 개선은 ‘자류보’의 실적과 Nesuparib의 신약 개
발 임상의 진척이 가시화되지만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거래량 활성화와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코스닥 상장 이후 재무 건전성을 빠르게 개선해왔으며, 25년 6월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8.7% 수준으로 사실
상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이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주 매입 등 추가
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리해보면, 이번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개선과 거래 활성화를, 중장기적으로는 경영진의 성장 자신감을 확
인할 수 있는 동사의 긍정적 catalyst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실적 개선과 맞물려 동사가 **주주친화적 기업**으로 자리매
김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리뷰

2024년 '자큐보' 출시 초기 단계와 전년도 일회성 기술이전 수익의 기저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는 듯한 그림이었으나, 신약 출시를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위한 발판을 다진 해

온코네티라퓨틱스는 2024년 매출액 14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9.5%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48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도 흑자에서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다. 지배주주 당기순손실은 81억 원으로, 전년도 순이익 17억 원에서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실적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2023년도 일회성 기술이전 수익의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며, 2023년에 중국 Livzon Pharma와의 계약금 등 '자큐보' 기술이전으로만 211억 원의 매출을 인식했으나, 2024년 기술이전 관련 매출은 약 90억 원이었다. 특히, 국내 매출은 '자큐보'가 2024년 10월 말에야 출시되면서 초기 판매에 그쳐 연간 실적에는 제한적인 기여에 그쳤다.

영업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지속됐는데, 2024년 영업비용 총 196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이 중 연구 개발비가 109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항암 파이프라인인 Nesuparib 임상 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실적 전망

동사의 2025년은 '자큐보'의 국내외 본격 매출 반영과 중국 파트너사 마일스톤 유입으로 인해 성장 1년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흑자전환과 기업가치 재평가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해

2025년 동사의 핵심 제품인 '자큐보'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25년 상반기에만 매출액 186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4.6배 급증**했고, 전년도 상반기 기준 38억 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자큐보'의 국내 매출이 상반기 164억 원에 달해 이미 2024년 연간 매출을 크게 웃돌았고, 이는 2024년 말 출시된 '자큐보'가 짧은 기간 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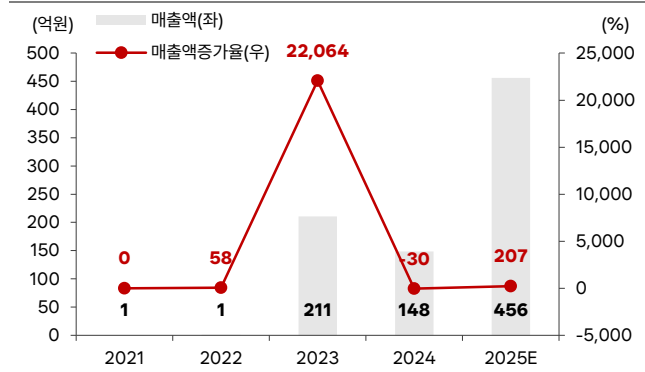
하반기에는 해외 마일스톤 수익이 반영될 예정인데, 3분기에 **중국 파트너사 Livzon Pharma로부터 500만 달러(약 7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수익을 수령하며 매출로 인식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누적 실적은 상반기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와 중국 시장의 성장성은 P-CAB 계열이 기존 PPI 계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 Livzon Pharma의 강력한 영업망과 맞물려 향후 로열티 수익 확대도 기대된다.

'자큐보'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2025년 동사의 연간 매출이 456억 원(+207% YoY), 영업이익 103억 원(흑자전환),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77억 원(흑자전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큐보'가 2025년 동사 매출의 100%를 차지하는 구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시장 판매는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해외 시장 판매는 각국의 파트너사가 담당하고 있어 영업/마케팅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증가 요인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특례로 상장된 바이오기업 중에서 1년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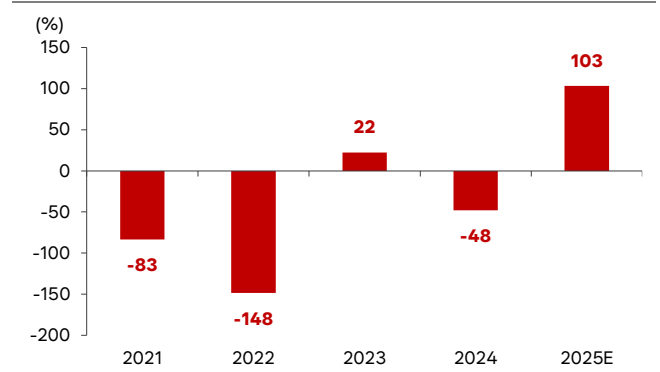
예상되며, 동사의 2025년은 '자류보'의 성장 동력을 확고히 입증하고,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모멘텀이 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	211	148	456
증가율 (%)	58.3	22,064	-29.5	207
자류보	4.9	195	50.2	456
영업비용	149	188	196	353
영업비용률 (%)	14,900	89.1	132.4	77.4
영업이익	-148	22	-48	103
영업이익률 (%)	-156.19	10.6	-32.3	22.7
증가율 (%)	적지	흑전	적전	흑전
세전계속사업이익	-144	7.0	-99	99
증가율 (%)	적지	흑전	적전	흑전
당기순이익	-144	17	-81	77
순이익률 (%)	-151.92	8.0	-54.5	17.0
증가율 (%)	적지	흑전	적전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44	17	-81	77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상장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자큐보'의 국내외 성장성과 중국 진출 기대를 기반으로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외에서의 고성장 가시화 & 네수파립 성과 본격화될 경우 장기적 재평가 여지 충분

앞에서 설명한 온코네티라퓨틱스의 2025년 실적 전망치를 기반으로 봤을 때, 상장 1년도 안된 신약 상용화 초기 기업으로서 동사는 이례적으로 빠른 수익화를 달성할 전망이다. 2025년 실적 전망치를 반영한 2025년 예상 밸류에이션 지표는 **PER 75배, PBR 9.2배, PSR 12.7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4년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함에 따라 PER 산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동사가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한지 1년도 안된 기업임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PBR과 PSR 중심의 상대가치 평가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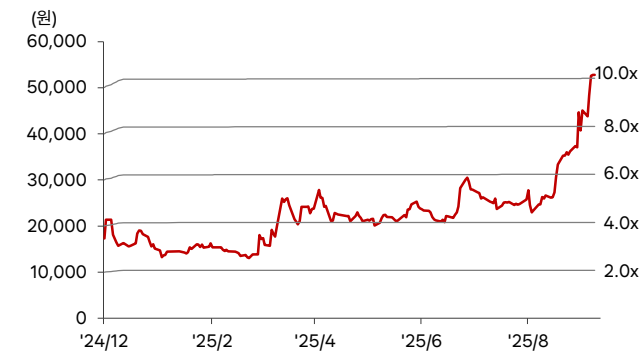
동사는 2024년 10월 P-CAB 계열 신약 '자큐보'를 출시한 이후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처방액을 확대하고 있고, 2025년 9월 발표된 1:3 비율(300%) 무상증자는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단 하루 만에 주가가 약 +20.5% 급등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는 회사의 성장 자신감과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발행 주식 수 증가에 따른 유동성 개선은 향후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주가는 '자큐보'의 국내 고성장세와 중국 파트너사 Livzon Pharma를 통한 마일스톤 유입(3분기 500만 달러, 약 70억 원 예정),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한 기대감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미 높은 성장세를 입증한 선발 P-CAB 계열 신약들의 사례와, 2026~2027년 중국 시장 진출 이후 로열티 본격 반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프리미엄 부여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기반한 정당화된 수준**으로 판단된다.

상장 이후 평균 PBR은 약 4.4배, 역사적 밴드는 2.5x~10.1x, PSR은 평균 11.8배, 역사적 밴드는 6.9x~26.9x에서 형성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2025년 예상 PBR 9.2배는 상단, PSR 12.7배는 중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상장 초기 프리미엄이 일부 조정된 이후, 국내외 시장에서의 빠른 점유율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중국 시장 출시 및 글로벌 마일스톤 유입, 후속 파이프라인 Nesuparib의 임상 진척도에 따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멀티플은 단순 신약 상용화 초기 실적 대비 부담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내 바이오 기업 중 상장 1년만에 흑자전환**, P-CAB 계열의 글로벌 확장성, 그리고 장기 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 중국 상업화 성과와 후속 파이프라인의 가시성이 확보될 경우,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장기적인 재평가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온코넵테라퓨틱스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온코넵테라퓨틱스 PS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현재 매출의 100%가 '자큐보'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약가 인하와 단일 제품 의존도가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후속 파이프라인인 Nesuparib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가 관건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자큐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반드시 감안해야 할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리스크는 크게 1) 약가 및 매출 구조 리스크와 2) 후속 파이프라인 성과 가시화까지의 공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약가 인하 및 매출 집중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현재 동사의 매출은 사실상 100%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자큐보'에서 발생하고 있다. 신약 상업화 초기 기업에게 특정 제품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 체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제품에 대해 3년 주기의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약가를 인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로 HK이노엔 '케이캡' 등 과거 사례에서도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확대된 이후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자큐보'는 '케이캡'(1,300원), '펙수클루'(939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911원)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약가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출시 후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약가 인하 가능성이 낮지만, 2027년 전후로 첫 급여 재평가가 도래할 경우 인하 리스크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매출 성장률 둔화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후속 파이프라인의 성과 가시화까지의 공백기다. 현재 동사는 '자큐보' 이후의 성장 동력으로 이중표적 항암신약 Nesuparib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Nesuparib은 아직 임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본격적인 매출 기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신약 후보가 임상에서 상업화까지 도달하는 성공 확률은 매우 낮고, 임상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발 비용과 경쟁 강도가 함께 상승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는 AstraZeneca, MSD, Pfizer 등 글로벌 Big Pharma들이 PARP 억제제를 중심으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동사가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임상 데이터와 병용 전략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점에서 '자큐보'를 대체할 확실한 매출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만약 Nesuparib이 임상 실패나 허가 지연을 겪을 경우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약가 인하 시점과 맞물리게 된다면 '자큐보' 성장세가 둔화될 때 이를 대신할 성장 동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자큐보'의 글로벌 기술수출 및 파트너십을 통해 단기적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Nesuparib을 포함한 차세대 파이프라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P-CAB 계열이 빠르게 PPI를 대체하고 있어 '자큐보'의 성장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출이 단일 제품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향후 2~3년 내 '자큐보' 이후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지가 동사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의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	1	211	148	456
증가율(%)	N/A	58.3	22,064.2	-29.5	207.3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원가율(%)	0.0	0.0	0.0	0.0	0.0
매출총이익	1	1	211	148	456
매출이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판매관리비	84	149	188	196	353
판매비율(%)	8,400.0	14,900.0	89.1	132.4	77.4
EBITDA	-82	-146	27	-43	108
EBITDA 이익률(%)	-13,598.3	-15,407.1	12.8	-29.3	23.6
증가율(%)	N/A	적지	흑전	적전	흑전
영업이익	-83	-148	22	-48	103
영업이익률(%)	-13,903.2	-15,618.5	10.6	-32.3	22.7
증가율(%)	N/A	적지	흑전	적전	흑전
영업외손익	-68	4	-16	-51	-4
금융수익	0	14	9	9	13
금융비용	68	11	25	81	1
기타영업외손익	0	1	0	20	-16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51	-144	7	-99	99
증가율(%)	N/A	적지	흑전	적전	흑전
법인세비용	0	0	-10	-18	22
계속사업이익	-151	-144	17	-81	77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51	-144	17	-81	77
당기순이익률(%)	-25,247.7	-15,191.5	8.0	-54.5	17.0
증가율(%)	N/A	적지	흑전	적전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51	-144	17	-81	77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9	-150	41	-78	72
당기순이익	-151	-144	17	-81	77
유형자산 상각비	2	2	5	5	4
무형자산 상각비	0	0	0	0	0
외환손익	0	0	2	8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9	-9	22	-57	-9
기타	69	1	-5	47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0	-26	-10	-1	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0	-26	-12	-1	0
기타	0	0	2	0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74	260	-0	196	4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4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75	0	0	198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199	260	0	-2	0
기타현금흐름	0	-0	-3	12	0
현금의증가(감소)	185	85	28	129	76
기초현금	4	189	273	301	430
기말현금	189	273	301	430	506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190	282	308	521	605
현금성자산	189	273	301	430	506
단기투자자산	0	0	0	0	0
매출채권	0	1	0	73	76
재고자산	0	0	0	0	0
기타유동자산	2	8	7	18	23
비유동자산	4	27	68	88	84
유형자산	1	26	32	30	26
무형자산	0	0	0	0	0
투자자산	0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3	1	36	58	58
자산총계	194	309	375	609	689
유동부채	5	266	570	48	50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0	0	0	7	22
기타유동부채	5	266	570	41	28
비유동부채	269	263	2	1	1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69	263	2	1	1
부채총계	274	528	572	49	51
자배주주지분	-80	-219	-197	560	638
자본금	29	29	29	54	54
자본잉여금	71	71	71	874	874
자본조정 등	2	7	13	23	2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183	-327	-310	-391	-314
자본총계	-80	-219	-197	560	638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N/A	0.0	N/A	75.0
P/B(배)	N/A	N/A	N/A	3.2	9.2
P/S(배)	0.0	0.0	0.0	10.2	12.7
EV/EBITDA(배)	N/A	N/A	9.3	N/A	49.7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2,136	-1,924	183	-871	704
BPS(원)	-1,081	-2,383	-2,138	5,185	5,762
SPS(원)	8	13	2,287	1,596	4,15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89.9	96.5	-8.1	-44.6	12.9
ROA	-78.0	-57.3	4.9	-16.4	11.9
ROIC	N/A	-978.5	101.1	-130.0	103.0
안정성(%)					
유동비율	3,609.9	105.9	54.0	1,094.0	1,220.0
부채비율	-343.5	-240.9	-290.7	8.7	8.0
순차입금비율	-102.2	-115.0	-127.8	-76.2	-78.3
이자보상배율	-12.6	-16.4	1.3	-7.2	858.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0	0.0	0.6	0.3	0.7
매출채권회전율	10.9	1.7	403.0	4.1	6.1
재고자산회전율	N/A	N/A	N/A	N/A	N/A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온코네티라퓨틱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0.01	온코네티라퓨틱스 - 자료보 꽃이 피었습니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